

나만이 소유하면 불행이지만 함께 나누면 행복이 되는 것이 소유의 법칙입니다.

꽃들이 자신의 향기를 나누듯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살 일입니다.

-성전스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중환자 진료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정 요건인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종합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할 수 있는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 여부를 모두 충족하며 우수한 진료체계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병원은 ▲응급 및 중환자 진료역량 강화 ▲지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 ▲병원 인프라 및 진료 서비스 개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재정 지원과 함께 중환자실·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서 경기북부 권역 중증 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 중증 치료기관, 지역 분만 기관 3단계로 구성된 병원 간 연계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북부 권역 내 중증 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권역 내 대표기관과 협력해 임산부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응급·고위험 산모의 분만 초기 상담과 필요 시 상급 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책임자는 산부인과 조혜정 교수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각 행정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5년 5차 환자경험평가 선포식’ 성황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난 7월 8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차 환자경험평가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 교직원이 환자중심 의료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백용해 병원장은 “2023년 4차 평가의 아쉬움을 딛고, 2025년에는 반드시 1등급 획득과 고양이 1위 달성을 이뤄내자”고 강조하며 “환자경험은 모든 부서의 협력과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과 김언빈 교수, 박현영 간호사, 영상의학과 박성주 파트장, 원무팀 안유정 직원, 이종화 보안담당자가 직종별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이어 우수부서 숏츠 영상 상영과 상반기 우수부서 시상이 진행돼 이비인후과, 42병동, 산부인과가 선정됐다. 2부 특강에서는 메디탐서비스 연구소가 실제 환자경험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공유해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경험 1등급 달성과 조직 내 협업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단단히 결속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픈헬스케어와 국제 진료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5일 오픈헬스케어와 국제 진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 인적교류 ▲외국인 환자의 사전 진료 및 사후 관리 등 국제 진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진료 연계와 관리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국제 진료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병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감염관리 주간행사 및 감염재난훈련’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7월 11일 ‘슬기로운 감염관리 생활, 다제내성균을 부탁해!’를 주제로 감염관리 주간행사 및 감염재난훈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7일 포스터 전시를 시작으로 내원객을 대상으로 손 오염도 측정 및 손위생 캠페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상황퀴즈와 OX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염관리 우수부서로는 ▲소화기내과 ▲외과계중환자실 ▲82병동 ▲동서 의학건진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손위생 우수직원으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재원 교수 외 4인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감염재난 훈련은 올해 완공 예정인 긴급치료병상 운영 계획과 재난 상황 대응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병상 배치 도면을 활용한 실습과 재난 대응 고려사항에 대한 토의를 통해 병원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기물 ZERO’ 캠페인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9일 2025년 Q1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폐기물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병원 내 의료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병원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간호부 수간호사를 비롯해 시설관리팀, 병리과, 진단검사학과 등이 참여했으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병동과 부서를 직접 방문해 폐기물 감량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D몽골그룹 회장단, 동국대일산병원 방문 - 의료 교류 협력 논의

몽골 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SOD몽골그룹의 아난드바자르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지난 7월 1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양 기관 간 의료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의료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아난드 바자르 회장은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진행 중인 ‘힐링케어메디컬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의료 서비스 및 인적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용해 병원장은 “병원의 가용 가능한 의료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안하신 해외 의료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지영선·김옥란 불자 부부, 발전기금 회사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깊은 인연을 맺고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불자 기업인인 지영선, 김옥란 부부가 최근 병원 발전기금으로 각각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회사해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몇 해 전에도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기부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온 인연 깊은 한 스님의 보시행에 깊이 공감하며 기부를 결심한 것이다. "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치유를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부부는 꾸준한 신행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아름다운 회향은 병원의 미래를 밝히는 연등(燃燈)이며 모두에게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 코너

그땐 그랬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년의 이야기

지난 시간 동안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병원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아요.

고봉산 등산대회
2007. 11. 4.

